



18일 오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들이 목표신항에 거처된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 후 발견된 유류품을 정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해수부가 이날 공개한 세월호 내부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철제벽 미로 구조’ 선체 중앙 수색이 난제

세월호 수색작업 본격화

18일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는 선내 수색작업이 본격화됐다. 수색작업은 작업자의 안전과 미수습자의 조속 수습이라는 명제에 따라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9개 진출입구 통해 진입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살베지 등은 A데크(4층)에 6개(객실3, 중앙로비1, 선미2)와 B데크(3층)에 3개(객실1, 선미2) 등 9개 진출입구를 확보했다.

이날 8명으로 구성된 수습팀이 4층 선수 좌현에서 수색을 개시했다. 총 투입인력은 9개조 70여명으로 코리아살베지, 해수부, 해경 관계자들이 협업했다.

4층 선수부터 번호가 붙여진 1, 2, 3, 6번과 3층 1번 진출입구는 가로 1.2m, 세로 1.5m로 뚫었다. 구역별로 바닥에 쌓인 지장물을 수거해가며 계획된 방향에 따라 수색한다. 철제 벽이 남아있는 곳에는 가설 사다리(비계)가 설치된다. 선내에 켜켜이 쌓인 지장물을 제거하면 작업자들은 팔을 모종삼으로 얇게 떠서 옮겨 담으며 뱃조각이나 유류품을 탐색한다. 수색 개시와 함께 가방, 옷가지 등 상당수 유류품이 나와 앞으로 작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9개 출입로 확보...모종삼으로 펄 떠서 옮겨 담으며 탐색

가방·옷 등 유류품 상당수 발견...3개월내 작업 마무리

■미수습자 발견되면 작업 중단

수색 중 미수습자가 발견되면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보존과 신원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발견 장소에 다른 뱃조각이나 유류품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어 더는 작업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유해를 수습한다는 것이다. 유해가 확인되면 검찰 검시, 해경·국과수의 검안을 거쳐 안전실에 안치된다. 이후 국과수에서 미수습자 DNA를 채취해 가족과 DNA 대조·감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현장수습본부, 가족에게 통보한다. 신원확인에는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확인 결과가 나오면 가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최대한 예우를 갖춰 인도할 계획이라고 현장수습본부는 밝혔다.

유류품은 초벌 세척해 분류한 뒤 진흙을 제거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물건 중 즉시 인도받기를 소유자 또는 가족이 원하는 경우 바로 넘겨준다. 그렇지 않으면 탈압 처리를 하고 다시 세척, 행균, 건조 과정 등을 거쳐 목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유류품은 목표시로 인계되며 6개월간 습득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전달된다.

■“3개월 내 마무리 목표”

선내 수색 기간은 일단 3개월로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코리아살베지와 선체정리업체 계약 체결 당시 예비기간 1개월, 본 작업 3개월, 보고서 작성 2개월 등 총 6개월을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근거로 수색 마무리까지 목표 기간을 3개월로 잡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단기간에 미수습자 전원 수습이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3개월 동안 목표를 달성하기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수색 작업은 안전을 고려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해 가며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두 달 안에 작업을 끝내는 최상의 결과를 모두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달 후 장마철이 다가온다. 호우 시에는 선체에 물이 잘 수도 있으며 작업자의 미끄러짐, 전기작업의 어려움 등 변수가 예상된다. 특히 철제 벽이 미로처럼 가로막아 내부 상황이 상대적으로 덜 파악된 선체 중앙 수색은 난제로 꼽힌다. 선체 중앙에는 6mm 안팎 철제 벽이 남아있는데, 이곳에 접근하려면 비계(가설 사다리)를 23m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진상규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선체훼손을 최소화하는 것도 수색팀이 안은 과제다.

■선체조사위 진상규명 활동도 본격화

선체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미수습자 수색계획에는 선체조사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수색의 핵심인 진출입구 확보 과정에서 선체조사위는 증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 절단을 허용했다. 단 조타실, 기관실, 기계실, 화물칸 등은 형상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수습과 관련해서 해수부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이지만 진상조사는 직권으로 한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화물칸 내부 차량에서 블랙박스 등이 나오면 직권으로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월호 침몰을 가속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2층 전막 구조물에 대해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국제기준에 비춰 설계가 적법하다는 승인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폭 무더기 적발

광주경찰청, 37억여원 채권 46명 검거

수십억원대의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3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37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8)씨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운영자인 김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다리 훌쩍개임’ 등 인터넷 사설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10여명의 회원들이 약 73억원을 배팅하게 해 이 가운데 3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도박자금 거래를 위해 소속자나 가족 명의의 통장을 개당 120만~140만원을 주고 구입해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해 법외회사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도박가담자를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했고, 사무실이나 출입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대부분을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탐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조직원 유모(30)씨가 수익금 중 4600만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납치해 차량이나 모텔에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내 총액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상위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제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t까지 싣는 1t 트럭의 비밀 알고보니

화물차 적재함 불법개조 축산·운송업자 43명 적발

축산물 운송차량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운행한 축산업자와 운송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무안경찰청은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한(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55)씨 등 축산업자 35명과 운송업자 7명, 농기계 수리업자 등 총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농가에서 우시장이나 도축장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불법개조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1t 트럭의 적재함을 최대 3t까지 싣을 수 있도록 확장·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나주·함평 등 농가에서 키우는 소를 우시장이나 도축장으로 옮기는데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조한 적재함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차량 정기검사에서 적발을 피해왔다. 또, 일부 차량은 소를 강제로 실으려 고 적재함에 전기 장치를 장착한 뒤 소의 뿔과 목에 와이어 줄을 걸고 강제로 끌어당기는 등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쓰고 남은 지렁이 보관해 달라며 낚시용품점서 행패

○“낚시용품 판매점을 찾아가 “쓰고 남은 지렁이를 보관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종업원과 업주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박모(48)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경 광주시 광산구 낚시용품점에서 업주 김모(51)씨와 종업원 서모(24)씨의 뺨과 다리 등을 10여차례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낚시용품점에서 구입한 뒤 쓰고 남은 지렁이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허위 살해 신고를 포함 약 100여건의 거짓신고와 악성민원을 일삼아 수사지구대 특별관리 대상이었던 인물”이라며 혀를 꼰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적장애인 대출 꼬드쳐 1억여원 가로채

목포경찰, 파렴치범 구속

자신을 친형처럼 따르던 지적장애인을 등진 30대 파렴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은 지적장애인에게 1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적장애인(2급) A씨(31)가 순천의 모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모두 1억1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5년 자

신이 운영하던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만난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데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을 악용해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면서도 도와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가 직장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뒤 대출금을 A씨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A씨에 대해 대부

업체가 대출과 관련한 제출 서류나 본인 동의 여부 의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대부업체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점으로 미뤄 여죄 및 다른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정가 3,406,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784,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익성 좋음)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탁장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